



VALUE UNIVERSE

VALUE TIMES

2019년 03월 셋째주



뉴라텍



비피유홀딩스



인성메디칼



포켓모바일



딜라이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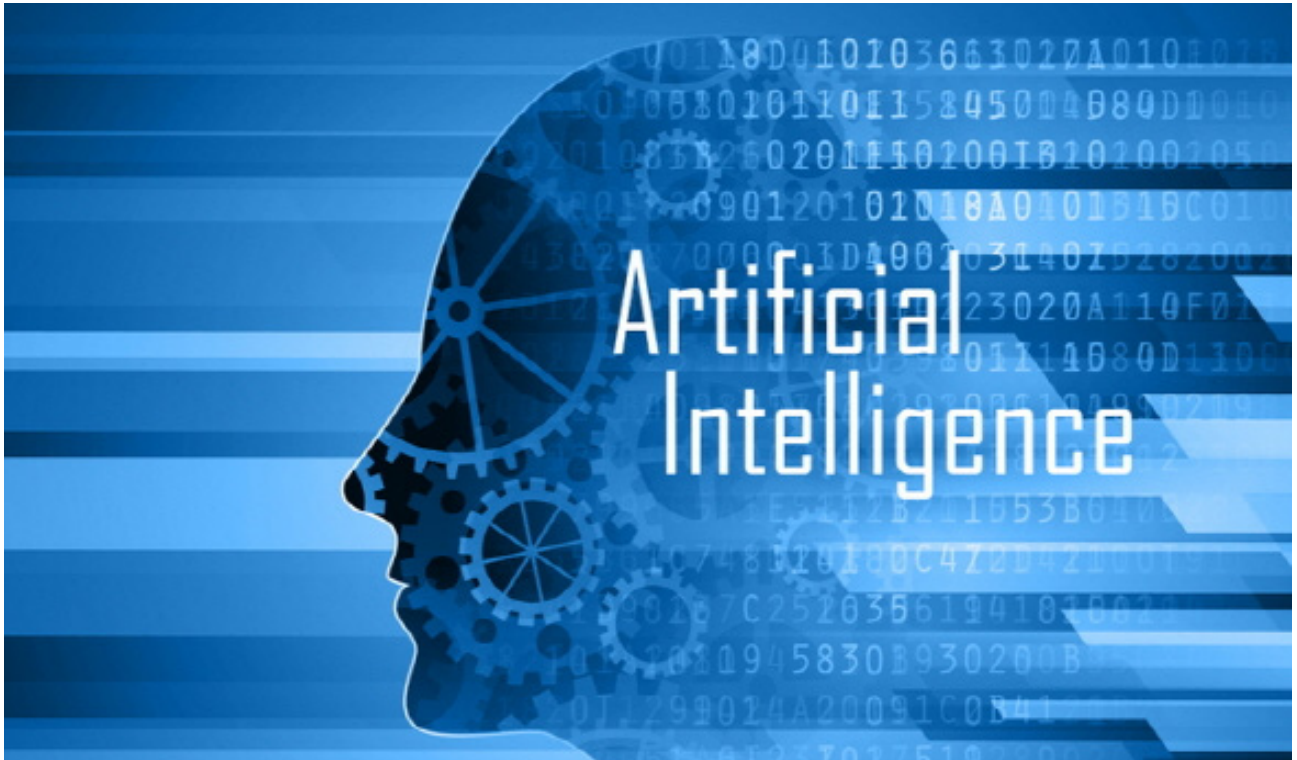


씨네룩스



세계 최대 무선통신 전시회 『모바일월드콩그레스(MWC)2019』 참가

- 세계 최대 무선통신 전시회 『모바일월드콩그레스(MWC)2019』 참가
 - 세계 최초 IoT(사물인터넷)용 장거리 와이파이 칩셋 및 관련 시제품 전시
 - 다양한 IoT 분야에서의 장거리 와이파이의 무궁한 활용가능성 시사
 - 뉴라텍 부스에 방문한 일반 관람객 : 약 2천여명
 - 39 개 고객 및 파트너 기업 대상의 별도 판매 및 파트너십 관련 비즈니스 미팅 진행
 - 2019년 6월 『모바일월드콩그레스 상하이 2019』 참가할 계획
 - 중국시장 내 제품 및 회사 인지도 제고 및 판매 촉진에 본격 시동



세바테크놀로지와 감성AI 의료 앱 개발 협력

■ 세바테크놀로지와 감성AI 의료 앱 개발 협력

- 치매와 정신질환을 진단 및 예방
 - 감성인공지능 기반의 인터랙티브 모바일 앱의 개발 및 의료기관의 성공적 도입 목표 (1차적으로는 아리조나주 내 병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)
- 사물인터넷(IoT) 디바이스 활용
 - 환자의 위험 상태 감지, 병원과 주치의에게 신속히 전달
- 치매 및 정신적 질환의 초기 증상의 고령의 환자 치료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전망
- 환자 본인 및 의료진 그리고 허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
- 상용화가 가능한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임상시험 단계
 - 향후 2~3년 내 완성 예정

※세바테크놀로지

환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혁신적이고 지능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아리조나대학 전기공학 및 컴퓨터공학 살림 하리리(Salim Hariri) 박사와 아리조나대학 노인병학장인 니밋 아가왈(Dr. Nimit Agarwal) 박사가 함께 설립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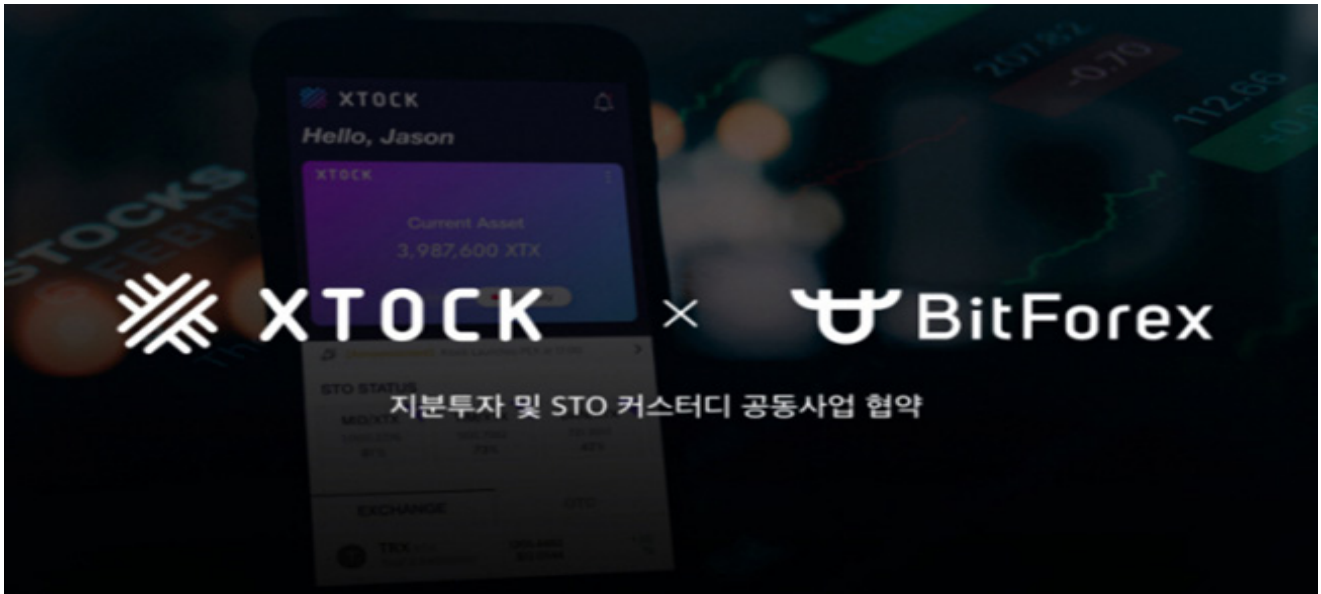
국내 최대 의료기기전시회 ‘KIMES2019’ 개막

■ 국내 최대 의료기기전시회 ‘KIMES2019’ 개막

- 인성메디칼 참여
- 695개사의 국내 제조업체 / 36개국 1,403개사의 업체 참가
- 첨단의료기기, 병원설비, 의료정보시스템, 헬스케어·재활기기, 의료관련용품 등 3만여 점을 전시

※ 제35회 국제의료기기·병원설비전시회(KIMES 2019)

- 일시 : 3월 14일(목) ~ 17일(일)(4일간)
- 장소 : 서울 삼성동 코엑스전시장(COEX) 전관



비트포렉스 지분 투자 · STO커스터디 공동사업 협약

■ 비트포렉스 지분 투자 · STO커스터디 공동사업 협약

- 커스터디 서비스를 비트포렉스 거래소의 상장사 및 개인 이용자 200여만 명의 지갑에 기본 탑재하는 것을 목표
 - 글로벌 은행계좌 및 원화, 달러, 암호화폐간 즉시 환전, 송금, 보관, OTC서비스 제공 예정
- 양사 협력 사업을 오는 6월부터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



특별 사회 공헌활동 ‘화제’

■ 특별 사회 공헌활동 ‘화제’

- 딜라이트 보청기 센터에 보청기 A/S 접수
→ A/S 완료 전까지 센터에서 고객에게 임시로 보청기 대여
- 보청기 수리 기간 동안 겪을 각종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이로 인해 발생할 여러 사건 사고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사회 공헌활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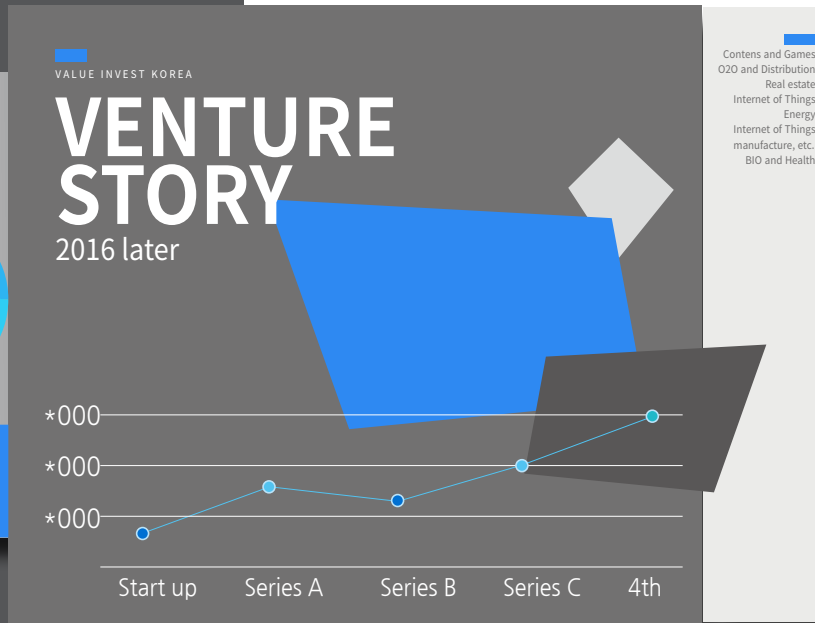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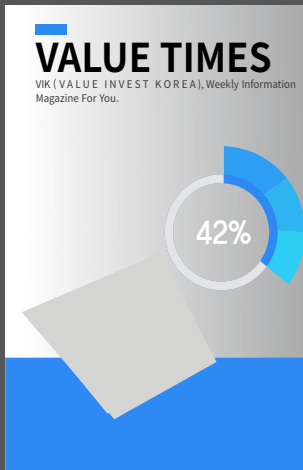
영화 <인 더 더스트> 미세먼지를 소재한 저예산 재난 영화

■ 영화 <인 더 더스트> 미세먼지를 소재한 저예산 재난 영화

- 제목 : 인 더 더스트
- 감독 : 다니엘 로비
- 출연 : 로망 뒤리스, 올가 쿠릴렌코, 팡틴 아흐뒤앵
- 제22회 판타지아 영화제 최고 작품상 수상
- 저예산 재난 영화의 모범적 사례
- 미세먼지라는 독특한 소재와 배우들의 연기, 결말 등 색다른 영화로 평가

VALUE INVEST KOREA VENTURE STORY

제81회 2019.03.20



● 액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...도대체 뭐가 달라?



엑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

무엇이 다른가?

엑셀러레이터 / 인큐베이터

■인큐베이터

초기 단계 기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또는 사업 관련 멘토링을 제공해주는 단체를 말한다. 스타트업이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해주는 게 인큐베이터의 주목적이다. 마치 아기를 키우는 보육기(인큐베이터)와 역할이 비슷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. 국내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262개의 '창업보육센터'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.

■엑셀러레이터

어느 정도 성장한 스타트업이 사업을 한 단계 '가속'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다. 투자유치 컨설팅, 사업설계 지원은 물론 투자에도 직접 참여한다. 자동차의 가속장치(엑셀러레이터)에서 명칭을 따왔다.

-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를 구분하는 결정적 요소는 '데모데이(사업설명회)'
- 대부분의 엑셀러레이터는 기수별로 스타트업을 모집한 뒤 사업 멘토링을 거쳐 데모데이에 내보내며 데모데이에서 투자자의 눈에 띈 기업들은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기회를 얻고 스타트업의 몸값이 높아지면 엑셀러레이터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 이익을 낼 수 있음
- 엑셀러레이터를 거친 스타트업은 본격적으로 벤처캐피털(VC)의 투자를 받기 시작하며 통상 5억~10억원가량의 투자가 이뤄지는 시리즈A 단계부터 VC들이 참여하고 기업 규모가 커지면 사모펀드(PEF)도 등장하며 PEF는 스타트업의 후기 단계 투자에 종종 참여함
- 2005년 설립된 미국의 와이콤비네이터(Y Combinator)는 에어비앤비, 드롭박스 등 다수의 유니콘(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)을 키워낸 엑셀러레이터로 잘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이재웅 쏘카 대표,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1세대 벤처 창업자들이 참여한 프라이머가 대표적 엑셀러레이터로 꼽히며 현재 145개의 엑셀러레이터가 활동 중임